

# 李濟馬의 形象觀에 對한 醫史學的인 考察

河 萬 秀\* · 宋 一 炳\*

## Studies on the medical histological point of view of Lee Je-ma's "Hyung Sang"

*Ha Mahn-soo, Song Il-byung*

Dept. of Orie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View of Lee Je-ma's "Hyung Sang" is one of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 In this study, I studied the "Hyung Sang" as medical histologically, and get the results as follow;

1. "The book of changes" is classified to the sciences of divination of "Sang-Soo", which is consisted with "Sang (image)" and "Soo (number)", and "Wae-Ri", which explained the meaning of a divination sign as "nature" or virtue of divination sign.
2. Lee Je-ma is accepted the concepts of science of divination of "Wae-Ri" based on Confucianism in the discription of "The book of changes". And also he established the new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ory based on the "Joung-Young".
3. "The book of changes" is discribed phenomena as "Sang" and "Soo" involving "Three elements", which are heaven, earth, and individual, and "Yin-Yang". Lee Je-ma accepted the concept of "Sang" in science of divination of "Sang-Soo" and established the "Four elements", which are affairs, mind, body, and objects, constituting "Three elements".
4. In the method of "Sasang" type classifying, Lee Je-ma used "Four elements", which attach

---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importance to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rather than "Yin-Yang", which explain relatively.

## 초 록

李濟馬는 四象人의 臟腑性理와 그에 해당하는 四象人의 外形을 발견하며 四象體質論을 성립시켰다. 四象人을 감별하는 辨證에 있어 容貌詞氣와 體質氣象, 性質才幹, 知行的 取象辨證 방법을 제시하면서 形象을 이용한 形象醫學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李濟馬의 形象觀은 四象醫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東武公의 形象觀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周易과 中庸 그리고 周敦頤의 太極圖說의 정신을 의사학적으로 비교하고 格致藁,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나타난 形象觀과 비교 고찰하고자한다.

形象은 形과 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形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象은 공통적인 분모로 유추하여 간접적인 그림자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物象과 눈에 보이지 않는 意象, 정신적인 면도 형상화할 수 있다.

李濟馬의 形象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詩傳에 有物有則인데 物은 形氣이고 則은 理이다라는 말이 있고 草本卷에 보면 有物有則에서 人形은 物이고 人性은 則이라고 하였다. 形氣와 人形은 象이 되고 理와 人性은 象이 나타나는 내재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黃老學派의 內景과 東醫保鑑의 氣裏形表라는 말에 비교하여 말하면 理裏象表라 할 수 있다.

李濟馬는 周易을 儒學적으로 해석한 孔子 이후의 義理學派의 개념과 道敎의인 陰陽五行사상을 儒學적으로 해석한 周敦頤, 中庸의 載物, 覆物, 成物の 개념과 儒學적 要約精神을 계승하여, 黃老學派의 象數易學의인 數理的인 陰陽五行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取象精神만 받아들여 事心身物의 四象만으로도 모든 사물과 의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四象醫學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形象醫學精神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周易의 解析方法에 數理와 象을 수단으로 하는 象數易學과 卦의 意味를 性情이나 卦德으로 설명하는 義理易學으로 나눌 수 있다.
2. 李濟馬의 形象觀은 周易의 儒敎的 해석의 도입과정에서 中庸에 나타난 요약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四象學의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3. 周易은 天, 地, 人 三才에 陰陽을 배경으로 하여 象과 數로써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李濟馬의 形象觀은 天, 地, 知, 行의 四才에 四象의 요약정신인 事心身物의 배경을 통하여 數보다는 象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4. 四象醫學에서 四象辨證의 방법에는 陰陽論이나 待對的인 설명보다는 四象의 요약정신의 形象觀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構造와 機能을 동시에 설명하는 방법이다.

## I. 緒 論

周易의 繫辭傳에 “夫象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聖人立象以 設卦以盡情偽 繫辭焉以盡其言 變而通之以盡利 鼓之舞之以盡神”, “形而上謂之道 形而下謂之器”, “是故 闔戶謂之坤 闔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制而用之謂之法 利用出入 民咸用之謂之神”<sup>1)</sup>라 하였는데 이것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道: 形而上的 超越界, 不可象者, 神化

器: 形而下的 經驗界, 可象者, 氣化

즉 形象이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본다’ 는 것을 표준으로 하면 象, 形, 器는 성질, 정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形而下學的, 氣化的 실재들로서 形而上學的 의미의 ‘神化’와는 대조가 된다. 일반적인 실재 존재의 상태, 특성, 의의는 모두 ‘象’이라는 개념으로 표상 할 수 있다. 象은 바로 모습 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잡다한 物象, 意象, 정신적인 관념 등도 象으로 통섭 할 수 있다.<sup>2)</sup>

內經은 陰陽五行的 사고를 배경으로 藏象論을 설명하고 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精氣神이 五臟六腑에 작용하여 顔面에 形氣色澤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생명의 壽 不壽를 짐작하는 氣裏形表의 정신에 입각한 形氣論의 形象醫學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에 반해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謂之太極 라하

여 形心論의 形象觀이라 할 수 있다.<sup>4)</sup>

李濟馬는 四象人의 臟腑性理와 그에 해당하는 四象人의 外形을 발견하여 四象體質論을 성립시켰다. 四象人을 감별하는 辨證에 있어 容貌詞氣와 體形氣象, 性質才幹, 知行的 取象辨證 방법을 제시하면서 形象을 이용한 形象醫學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李濟馬의 形象觀은 四象醫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東武公의 形象觀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周易과 中庸 그리고 周敦頤의 太極圖說의 정신을 의사학적으로 비교하고 格致藁,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나타난 形象觀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周易

易이라 하면 고대 중국에서 제사지내기 전이나 전쟁 같은 중대사를 치르기 전에 점을 쳐서 결정하였던 점서의 도구를 통틀어서 말한다.<sup>5)</sup>

주례 예기에는 太卜이라는 관리가 三易을 관장했다는 말이 있는데 3易이란 連山, 歸藏, 周易을 말하는데 連山은 夏나라의 易, 歸藏은 殷나라의 易, 周易은 周나라의 易이다. 連山과 歸藏은 없어지고 周易만이 남아 있다.<sup>6)</sup>

1) 한국주역학회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사 서울 1992 P.221

2) 上揭書 P.224

3) 宋一炳 외 「四象醫學」 集文堂 P.54

4) 上揭書 P.54

5) 康學偉의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서울 P.18

6) 上揭書 P.19

周易은 본래의 본문인 經과 뒷사람의 해설 부분인 傳이 합쳐진 것이다. 그 해설 부분인 傳이 漢代에 이르러 經의 지위로 격상이 되자 周易 전체를 易經이라 부르는 명명법이 일반화되었다.<sup>7)</sup>

彖傳上下, 象傳上下, 繫辭傳上下, 文言, 序卦, 設卦, 雜卦의 열가지를 합쳐서 十翼이라고 하는데 十翼의 저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논쟁은 易傳과 孔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관점은 대개 네 가지이다. 첫째, 易傳 10편이 모두 孔子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대표자는 동한의 班固와 鄭玄, 당대의 陸德明, 顏師古, 孔穎達, 근래의 顧實, 尙秉和등이다. 둘째, 易傳중 彖傳과 象傳만 孔子가 지었고 나머지는 제자나 후학들이 지었다는 견해이다. 그 대표자로는 송의 歐陽脩, 근래의 張心徵 등이 있다. 셋째, 易傳이 결코 孔子의 작이 아니며 전국 중기나 말기 혹은 서한의 소제, 선제 때나 심지어 그 뒤에 나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대표자로는 송의 趙汝談, 청의 崔述, 廖平, 康有爲, 근래의 錢玄同, 顧頡剛, 李鏡池, 郭沫若 등이 있다. 넷째, 易傳은 기본적으로 孔子의 작이지만 그 가운데 앞사람의 遺聞을 기술한 부분도 있고 문인 제자들이 평소 孔子의 강술을 기록한 부분도 있어서 論語의 사향과 비슷하며, 그 思想은 응당 孔子에 귀속하지만 뒷사람이 함부로 끼워 넣은 부분도 있는데다가 脫文, 錯簡도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의 대표자는 근래의 金景芳이다. 보통 네 번째의 관점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sup>8)</sup>

역사상 易學의 分派는 대단히 복잡하다. 四庫館臣<sup>9)</sup>은 易學史의 원류와 변천을 兩派六宗이라고 개괄하였다. 兩派는 義理派와 象數派를 말하며 義理派

는 周易의 文辭를 통하여 周易 철학의 대의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고, 象數派는 易의 象과 數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기에 따라서 易學도 서로 다른 易學이 되어 왔다. 역사에 따라 易學 발전사를 나누면 크게 여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先秦 시기이다. 이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春秋 이전의 西周 初까지로 易學의 맹아 단계와 春秋에서 戰國까지로 易學의 기초가 놓인 단계로 象數, 義理 두 과의 단초가 이때에 드러난다. 占筮派와 孔子로 대표되는 義理派가 周易 연구에서 확연히 다른 견해를 형성하여 이후 易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2기는 兩漢 시기, 즉 漢易의 시기이다. 漢易은 象數學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漢易은 당시의 天文易法과 융합하고 점성술 및 天人感應說의 영향을 받았다. 漢易의 대표적인 인물은 孟喜와 京房이다. 그들은 設繫傳을 근거로 삼아 奇偶의 數와 八卦卦象說로 周易을 풀이하였다. 東漢 시기에 鄭玄은 爻辰說과 五行說을 내놓았다. 西漢의 嚴君平和 揚雄은 道家黃老의 學으로 易을 풀이하였다.

제3기는 魏晉隋唐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魏晉 시대에는 玄學의 길로 발전하는데 王弼이 주된 인물이다. 그는 漢易의 象數學을 극력 배격하고 義理를 중시하여 孔子의 易 해석 학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老子의 철학을 끌어 들여 玄易學을 창건하였다. 南北朝 시대의 易學은 魏晉 易學의 연속으로 王弼派의 易學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孔穎達은 周易正義를 지어 王弼派 易學의 각도에서 象數와 義理의 유파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玄易學의 시기로 불린다.

7) 康學偉의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서울 P.19

8) 上掲書 P.103

9) 四庫館臣이란 四庫全書總目提要를 작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4기는 宋元 시기이다. 南宋과 北宋의 易學은 易學과 理學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래서 宋易을 理學易이라 고도 한다. 이 시기에 象數派와 義理派의 싸움은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는데 宋易 가운데 象數學派는 漢易의 象數學으로 易을 풀이하는 이외에 각종의 圖式을 제출하여 역리를 해석하였다. 그래서 圖書之學이라 칭한다. 그들은 象數學을 한 걸음 더 哲理化, 특히 數理化 하려고 노력하여 數學派를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周敦頤를 들 수 있다. 그는 太極圖說과 通書를 지었다. 太極圖說에서 宇宙萬物의 生成變化의 원리를 설명하였는데 道家的인 太極陰陽論을 儒教的인 관점에서 재정립한 것이다. 한편 北宋의 義理派는 圖書派의 易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程頤의 理學派와 張載의 氣學派가 北宋 義理派의 대표이다. 南宋에 이르러 程頤의 理學易이 주류를 이루었다. 朱熹는 理學家的 입장에서 宋代의 易學을 집대성하였다.

제5기는 明清의 시기이다. 세 단계로 다시 나누어진다. 우선 明代는 宋易의 시기이다. 宋代의 설을 답습하였으므로 특색이 없다. 다음 明末 清初에는 宋易에서 樸易으로 전환 시기로 明清 易學에서 가장 생기 넘친 시기이다. 王夫之가 독특한 체계를 수립하여 宋易 義理의 연구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리고 황중희 형제, 毛奇齡, 胡濬가 圖書象數學을 비판하자 宋易은 쇠퇴하고 樸易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乾嘉 시기(乾隆-嘉慶)에는 考證學의 발달과 함께 樸易學이 발달하였다. 樸易學은 漢魏 시대의 易學 문헌을 정리하는 것이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문헌학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고대 易學史는 여기서 마감하게

된다.

제6기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로 현대 易學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네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첫 시기는 1930,40년대로 전통 易學의 관점을 비판한 단계이다. 둘째 시기는 대륙에서 1950,60년대 이래 周易 경전을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연구한 단계이다. 셋째 시기는 대만에서 1970년대 이래로 과학역 연구가 흥기한 시기이다. 넷째 시기는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로 易學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10)

이렇게 周易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學派들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크게 象數易學과 義理易學을 벗어나지 않는다.

象數易學은 64卦, 爻辭를卦, 爻象과 奇, 偶의 數로써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象과 관련된 것을 보면 八卦를 만물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八卦가 표시하는 8개의 부호를 천지간의 物象에 견주고 있다. 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표 1>

八卦	乾	坤	震	巽	坎	離	艮	兌
自然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
人間	父	母	長男	長女	中男	中女	少男	少女
性質	健	順	動	入	陷	麗	止	說
動物	馬	牛	龍	鷄	豕	雉	狗	羊
身體	首	腹	足	股	耳	目	手	口
方位	西北	西南	東	東南	北	南	東北	西

10) 康學偉의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서울 P.50~93

11) 上揭書 P.21

大象傳에서는 八卦의 상징 체계를 이용하여 卦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이 卦象이다. 爻象은 가장 기본적인 부호인 一와 二를 각각 陽爻, 陰爻라 칭한 후 男性과 女性, 임금과 臣下, 君子와 小人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解易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解易 체계를 取象說이라 한다.<sup>12)</sup>

數는 6劃卦의 여섯 爻位를 初, 二, 三, 四, 五, 上爻라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初, 三, 五爻를 奇로, 二, 四, 上爻를 偶로 분류하여 奇, 偶의 爻가 그 奇, 偶의 位에 제대로 자리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득과 실로 범주화하여 解易한다. 또 陰爻를 六이라하고 陽爻를 九라고하여 번역의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고, 大衍之數와 天地之數의 체계를 논하기도 한다. 이러한 數의 체계는 宋代의 召雍에 이르러 數生象, 象由數設, 極數定象 등의 실로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奇, 偶의 數 및 그 변화를 핵심으로 하여 易을 해석하였다. 이처럼 象數學은 천하의 만물을 분류하고 범주화한 뒤, 卦, 爻象과 數에 이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解易하는 체계이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상징 체계는 구체적인 사실 세계와는 관계없는 또 하나의 인위적인 배열의 세계이므로 한없이 복잡하게 상징될 수 있는 소지가 처음부터 잉태되어 있었다. 나아가 象數 易學은 陰陽五行 思想과 함께 어울려 陰, 陽의 消長, 往來와 五行의 循環을 한데 엮는 解易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즉 상징체계로서의 象과 數를 陰陽五行의 有機的 關係로 치환하여 그 관계성에서 체계의 정합성을 찾으려 하였다. 세계를 陰, 陽의 消長, 往來와 五行의 有機的 循環으로 설명하면서, 易이 세계의 模式으로서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전제 아래, 동일한 체계를 易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象數學은 天理와 인간사를 관통하여 해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비하고 심오하다는 일종의 믿음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크게는 왕조의 흥망성쇠에서부터 작게는 개인들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여겼다. 역이 천문, 지리, 역법, 의학, 연달술 등에 응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所以가 여기에 있다. 象數學은 易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재구성된 틀 속에 붙고자 하는 자기 운명이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점을 쳐서 얻은 해당 占辭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受動的, 消極的, 運命的 順應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14)</sup>

義理易學은 說卦傳의 取義說에서 그 본보기를 찾는다. 대표적인 예가 乾健也, 坤順也, 震動也, 巽入也, 坎陷也, 離麗也, 艮止也, 兌說也이다. 彖傳은 대표적으로 이 取義說을 인용하여 解易하고 있다. 取義說은 卦가 구체적인 천하 만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卦의 의미를 性情이나 卦德으로 말한다. 德으로 점을 대신한다는 것이 義理易學의 기본 성향이다. 곧 易學이 철학화 하게 된 것이다. 이 역학을 제창한 사람은 儒家學派의 창시자인 孔子이다. 周易에 대한 孔子의 태도는 점을 치지 않았음이었고, 易學의 방법은 德義를 봄이었으며, 易을 공부하는 목적은 大過 없음에 있었다. 孔子의 이러한 易學 思想은 儒家의 易 해석 전통을 열어 易學을 철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후대의 易學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義理易學은 宋代에 이르자 新

12) 金珍根 「왕부지의 주역 철학」, 예문서원 서울 P.71

13) 上揭書 P.71

14) 上揭書 P.74

儒學者들에 의하여 儒家的인 仁義 道德의 정당성과 그것에 의한 儒家의 이상사회 건설에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나갔다. 즉 易의 儒敎化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朱熹를 들 수 있는데 그는 吉凶의 여부가 단순히 점을 쳐서 얻은 해당 卦爻辭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점친 사람의 덕성이라 하였다. 즉 점친 사람에게 그 덕이 있으면 점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오히려 반대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卦爻辭는 비록 吉하더라도 자신의 덕성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못되면 오히려 凶하고, 卦爻가 비록 凶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덕성이 그것을 누를 만하면 오히려 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義理易學은 象數易學이 수동적, 소극적, 운명 순응적인 특징을 갖는데 비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특징을 갖는다. 易의 점쳐 얻은 해당 占辭를 인간 중심으로 다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易의 교훈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인위적인 노력을 들여 그 운명을 改變하고 극복하려고 한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象數易學은 象과 數理로서 사물을 인식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나중에 陰陽 五行說과 결합하여 黃老學派들이 象數易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內景醫學도 그 흐름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義理易學은 孔子로부터 시작하여 仁과 義, 德을 중시하였는데 주로 儒學쪽

에서 많이 받아들였다.

李濟馬의 周易에 대한 관점은 象數와 義理易學의 관점에서 보면 易을 儒敎的으로 해석한 義理易學에 해당하고, 象數易學 중에서는 數理개념은 배격하고, 取象 개념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2. 中 庸

誠者 天下之道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sup>16)</sup>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誠이 단순히 人道가 행해지는 기초로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보 더 나아가 宇宙間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로 생각한 것인데, 종래 儒家로부터 일보 전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誠이란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이므로 誠되려고 노력함으로써 天地의 化育을 돕는 일도 가능하고 또 禍福이 장차 닥치려고 할 때 그것을 先知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sup>17)</sup>

中庸의 정신은 孔子 孟자의 儒敎精神을 계승하여 誠으로써 天地間을 관통하는 道로 삼고있다.

中庸은 四象醫學의 기본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即 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即 能盡物之性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仁也 成物知

15) 金珍根 「왕부지의 주역철학」예문서원 서울 P75~77

16) 「中庸」전통문화연구회 서울 P.93

17)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  
誠成己道 可以先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祚將亡 必有妖孽  
見乎蓍龜 動乎四體 禍福將至 善必先知之 不善必先知之 故至誠如神

也 性之德也 合內外之

道也 故時措之宜也

故 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博厚所以 載物也 高明所以覆物也 悠久所以成物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라 하여 中庸의 盡己盡物과 成己成物에서의 己(내적)와 物(외적)의 요약정신으로부터 비롯하여 己에서 身心으로 物에서 事物로 연역하여 心身事物이라는 四象의 構成要素가 도출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己(心身)는 내적 현상이고 物(事物)은 외적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中庸의 정신 이면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에 合內外之道를 완성한다는 誠의 정신이 깔려있다.<sup>18)</sup>

中庸의 또 다른 언급 중에 載物(地), 覆物(天), 成物(人)의 三才에서 成物인 人을 知와 行으로 구분하여 天地知行之 四才를 도출하고, 다시 이를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정립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四象醫學草本卷에 精神氣血의 能은 周而暢하므로 載萬物하고, 首腹脇股의 能은 堅而勸

하므로 行萬物하고, 肺脾肝腎의 能은 忍而容하므로 知萬物하며, 耳目鼻口의 能은 敏而捷하므로 覆萬物한다라고 해석하여 天地知行之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 3. 周敦頤

道學의 시조로서 저술로는 太極圖說과 通書가 전해지고 있다. 전자는 宇宙生成의 理를 太極圖로 나타내고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易通이라고도 하며 中庸의 개념을 빌려 儒學의 정치 教化 및 道德修養의 思想을 논한 易學서이다.

周敦頤는 太極圖說에서 無極, 太極生兩儀, 兩儀生五行, 五行生萬物이라는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인간에 있어서도 形神-五行-萬事의 관계로 도식화하여 天과 인간 사이의 일치를 논했다. 무욕한 상태인 靜에 의하여 仁義中正이 수립될 때에 天地, 日月, 鬼神과 합일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의 道를 세우는 것은 陰陽이고, 땅의 道를 세우는 것은 剛柔이고, 인간의 道를 세우는 것은 仁義다라 하였다.<sup>20)</sup>

周敦頤는 易 해석을 道家的인 太極陰陽說을 儒家的인 仁義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8) 宋·二柄의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P.61

19) 上揭書 P.61

20)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而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 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合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既生焉 神發知焉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焉 聖人定之而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地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死生 大哉易復 斯其至焉

#### 4. 格致藁

格致藁의 내용은 儒略, 反誠箴, 獨行編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儒學에서 추구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독창적 방법과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가 44세부터 57세까지 10년에 걸쳐 獨行編, 儒略, 反誠箴의 순서로 완성하였는데 東醫壽世保元을 쓰기 전에 지었으므로 四象醫學의 원리를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가 수록되어 있다.<sup>21)</sup> 따라서 四象醫學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格致藁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 1) 儒 略

儒略의 내용은 四象 즉 事心身物의 개념적 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儒學에서 추구하던 제반 문제와 철학적 개념들을 李濟馬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재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儒略의 事心身物

(陽) 經濟事	決誠散智萬大治平	貌言視聽	溱心
心宅事	覺慧聚禮	小格致	辨思問學應事
身宅心	行能群義	一近誠正	屈放收伸行物
(陰) 質重物宅身	止勸居仁萬遠	修齊志瞻慮意	隨身

이와 같이 李濟馬는 事心身物이라는 독특한 本體論으로 그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四象類型的 要約精神으로 나타내었다. 事와 心은 無形으로 形而上學的이라면, 身과 物은 有形으로 形而下學的으로 볼 수

21) 宋一炳의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P.40

22) 李濟馬 「格致藁」, 태양사 서울 P.151

23) 上揭書 P.286

있다.

##### 2) 反 誠 箴

反誠箴은 李濟馬의 周易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으로 八卦를 자기 나름대로 儒學的으로 해석하였는데 形象觀의 골격이 여기에서 형성된다.

李濟馬는 反誠箴의 書頭에서

“此箴名義 依倣易象 而乾兌箴 尊道中庸 坤艮箴 欽德大學 離震箴 取卽柳下 惠 坎巽箴 取則伯夷<sup>22)</sup>”

라 하여 이箴의 이름과 뜻은 주역의 象을 본떴다. 乾兌箴은 中庸의 道를 높인 것이요, 坤坎箴은 大學의 德을 기린 것이요, 離震箴은 柳下惠와 같은 현실주의에서 취한 것이요, 坎巽箴은 伯夷와 같은 이상주의에서 취한 것이다 라 하였으며 “形理之取象只是臆見 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易象如此也 若夫卦之名義 暗含有異者 則實非臆見探伊之所及也 固不可舉論也 故曰 依倣”이라 하여 形理의 취상은 단지 내 臆見이다 그 상은 여덟 개가 있으나 伏羲의 易象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진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卦의 이름만 빌려다 쓴 것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진실로 臆見은 탐구하여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순히 본뜬 것 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단지 卦의 말만 빌려다 쓴 것이지 周易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艮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sup>23)</sup>

八卦를 乾坤離坎과 艮兌震巽으로 나누어 내가 남에게 사기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의 문제와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不爲 小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24)

八卦를 乾兌부위는 --身이 하늘 아래에서 誠을 세우는 것은 中庸之道가 하늘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윗쪽 부위에 배속시키고 坤艮부위는 인간사회라는 것은 땅위에서 일어나므로 大學之德이 땅위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아랫 부위에 배속시켰다. 整齊하고 知行하는 術은 그 이치가 左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術은 나에게 있음으로 離震부위는 左에 배속했다. 平均하고 財祿하는 權勢는 그 이치가 右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權은 타인에 있는 것이므로 坎巽부위는 右에 배속했다.

身有兩用 誠身敬身也 心有兩用 理心利心也  
誠身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敬於坤也  
理心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利於坎也  
擇理未精 卽理亦利也 擇利得正 卽利亦理也25)

몸에는 誠身 敬身の 두 가지의 쓰임이 있고 마음에는 理心 利心の 두 가지 쓰임새가 있다.

誠身 敬身하는 것은 몸의 전후의 문제인데 誠은 乾에 해당되고 敬은 坤에 해당된다 理心利心은 마음의 좌우를 나타내는데 理는 離에 해당되고 利는 坎에 해당된다. 理를 택함에 정미롭지 못하면 理 또한 利가 되고 利를 택함에 정을 얻으면 利 또한 理가 된다고 하였다.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26)

易에 太極이 있어 兩儀를 생하고 兩儀는 四象을 생하고 四象은 八卦를 생하고 八卦는 吉凶을 정하고 吉凶은 大業을 생한다. 太極은 心이고 兩儀는 心身이고 四象은 事心身物이다. 八卦라는 것은 事에는 終始가 있고 物에는 本末이 있고 心에는 緩急이 있고 身에는 先後가 있다. 乾은 事의 始이고 兌는 事의 終이 되고 坤은 物의 本이고 艮은 物의 末이 되고 離는 心의 急圖이고 震은 心의 緩圖가 되고 坎은 身의 先着이 되고 巽은 身의 後着이 된다 라 하였다.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心身物之心 四象之心也

24) 上揭書 P.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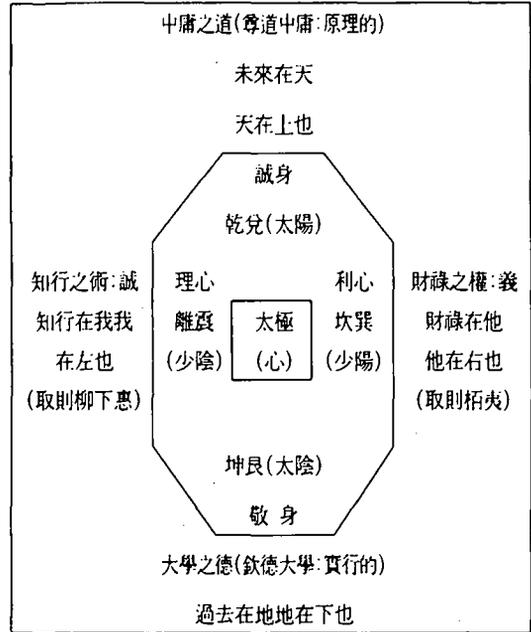
25) 上揭書 P.287

26) 上揭書 P.288

易繫辭之乾坤 以兩儀之乾坤言之也 八卦之乾坤 以八卦之乾坤言之也  
 六十四卦之乾坤 以六十四卦之乾坤言之也 中央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  
 亦類此也 統而言之 卽六十四卦 皆太極也. 六十四卦之三十二卦 皆乾也  
 八卦 皆心也 不必執--而置疑也  
 曰 "然即身之上下爲乾坤 心之左右皆爲離坎者 何耶?"  
 曰 "身之實理直行 故有前後而無左右 心之實理廣濶 故有左右而無前後  
 若夫身之左右橫放 心之上下出沒 則私放逸慾之所致也  
 非擇乎中庸 允執厥中之上下左右也<sup>27)</sup>

라 하여 太極의 心은 中央의 心이고 心身의 心은 兩儀의 心이고 事心身物의 心은 四象의 心이라 하였다. 周易의 繫辭에서 말하는 乾坤은 兩儀 乾坤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八卦의 乾坤은 八卦의 乾坤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64괘의 乾坤은 64괘의 乾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中央의 心 兩儀의 心, 四象의 心도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통괄하여 이야기하면 64卦가 모두 太極이요 64卦 중 32卦가 모두 乾이 될 수 있고 8卦가 모두 心이 될 수 있다하여 하나에만 고집하여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身의 上下가 乾坤이 되고 心의 左右가 離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身의 이치는 직행하기에 前後만 있고 좌우가 없고 心의 이치는 넓게 퍼지는 것이므로 左右는 있고 前後는 없다 라 하였다. 사람의 몸이 옆으로 가고 心이 상하로 出沒하는 것은 私放逸慾 때문이고 이것은 中庸의 允執厥中之 上下左右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은 東醫壽世保元을 쓰기 전, 格致藁 이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사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그의 일치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은 데 이를 통하여 李濟馬의 周易觀에서 四象觀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므로 李濟馬의 초기 四象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 有生也.  
 注: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皆出於知行
-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義食則生, 無衣食卽死, 衣食者道之所 有生也

27) 上揭書 P.289~290

注: 土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皆出於衣食

性を知行, 命을 衣食에 배치하였는데, 壽世保元에는 慧覺과 資業으로 바뀌게된다.

- 人稟臟氣有四不動, 肺大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脾小者, 名曰少陰人

注: 肺強則肝弱, 肝強則肺弱, 脾強則腎弱, 腎強則脾弱,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二變錯綜其數求之, 有道德之有命, 聖人如衆人一同也

肺와 肝, 脾와 腎을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는 盈縮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人越慾心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鄙, 薄, 貪, 懦인을 각각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정확히 규정하고있다.

- 太少陰陽之兩偏長短, 則性情之變化具天而盈縮者也, 聖人如衆人一同也, 貪 懦鄙薄之人 四隅漏缺, 卽死慾之桎梏, 其人暴棄者也, 聖人如衆人萬殊也.

壽世保元에서는 聖인과 衆인이 天理之變化로서 같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性情의 變化로 盈縮하는 원리가 聖인과 같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才幹, 腎行便宜

肺脾肝腎에 知와 行을 배속하였는데, 壽世保元의 頷臆臍腹에 知를, 頭肩腰腎에 行을 배속한 것과는 다르다.

- 太陽人哀局大而怒氣直, 哀大者仁也, 怒氣直者

義也. 是局者哀他衆人之有成也. 是器者怒夫別人之詐欺也

- 少陰人樂局大而喜器直, 樂大者仁也, 喜直者義也. 是局者樂他衆人之所居也. 是器者喜夫別人之助己也.
- 太陰人喜局大而樂器直, 喜大者仁也, 樂直者義也. 是局者喜他衆人之相助也. 是器者樂夫自己之有居也.
- 少陽人怒局大而喜氣直, 怒大者仁也, 哀直者義也. 是局者怒他衆人之相欺也. 是器者哀夫自己之有成也.

壽世保元에는 肺脾肝腎의 四象에만 局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喜怒哀樂의 性情에다가 局과 器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아마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부위 개념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

- 太陽人哀性闊散而怒情促急, 哀性闊散則氣注肺而肺益壯,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人肺質肝虛者, 此之故也

四象에는 虛實의 개념이 없는데 이 때는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서 虛實概念을 사용하였다가 壽世保元에는 大小의 개념으로 바꾼 것 같다.

- 精神氣血之能周而暢也, 周而暢, 故載萬物也.
- 首腹脇股之能堅而勤也, 堅而勤, 故行萬物也.
- 肺脾肝腎之能忍而容也, 能忍而容, 故知萬物也.
- 耳目鼻口之能敏而捷也, 敏而捷, 故覆萬物也.

中庸의 載物, 覆物, 成物의 개념을 인용하여, 天地人의 三才를 人에 해당하는 成物을 知와 行으로 나누어서 四才로 만들어서 四象의 事心身物로 정립했음을 알 수 있다.

-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謂之太極.

-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止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 者謂之兩儀.
-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謂之四象, 止有四志, 魄魂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人性 人形을 太極으로, 知行을 兩儀로, 止, 動, 覺, 決에 각각의 四象이 있다.

- 肺旺春, 脾旺夏, 肝旺秋, 腎旺冬.
- 春氣生, 夏氣長, 秋氣收, 冬氣藏.
- 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木.
- 木氣發, 火氣鬱, 金氣溢, 水氣泄.

肺脾肝腎에 四季와 五行中에서 木火金水を 배속하고 그 속성을 같이 기록하였는데 李濟馬의 글 중에서 五行의 내용이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다.

-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 曾子之治平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治也, 少陰之象也.
- 孟子之雄辯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 子思之中庸行而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

지나간 사람들의 행적, 즉 知行을 보고 그 사람의 외적인 형태나 性情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체질을 감별했다.

## 6. 東武遺藁

- 膀胱物也, 腰臍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心身物을 위에서 아래로 위치개념으로 설정했다.

- 事則天也, 物則人也, 身則命也, 心則性也.

天地人에서 人을 心身으로 나누어, 天人性命의 四象으로 만들었다.

- 在天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四象을 上下의 構造와 左右의 機能으로 나누었다.

### 八卦箴總論

- 乾兌智也, 其理行乎未來而, 誠僞之辨, 皆取諸象也.
- 坤艮仁也, 其理行乎過去而, 善惡之辨, 皆取諸象也.
- 離震義也, 其理行乎知行而, 賢不肖之辨, 皆取諸象也.
- 坎巽禮也, 其理行乎祿財而, 貧富貴賤之辨, 皆取諸象也.

八卦를 儒敎的으로 해석하여 仁義禮智와 과거, 미래, 知行과 材祿으로 나누고, 모든 것을 象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7. 總括 및 考察

形象은 形과 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形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象은 공통적인 분모로 유추하여 간접적인 그림자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物象과 눈에 보이지 않는 意象, 정신적인 면도 形象化할 수 있다.<sup>28)</sup>

28) 한국주역학회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사 서울 P.224

사물을 인식하는데는 遠取在物하는 방법과 近取在身하는 방법이 있는데 李濟馬는 인간을 먼저 보고 다음에 宇宙와 사회 현상을 관찰하였다. 인간을 보는 데에 있어서도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肺脾肝腎을 기준으로 안에서 밖을 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李濟馬는 喜怒哀樂性情의 편차에 의하여 臟腑의 대소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체질적 특성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形象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李濟馬의 形象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詩傳에 有物有則인데 物은 形氣이고 則은 理이다라는 말이 있는고 草本卷에 보면 有物有則에서 人形은 物이고 人性은 則이라고 하였다. 形氣와 人形은 象이되고 理와 人性은 象이 나타나는 내재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東醫保鑑의 氣裏形表라는 말에 비교하여 말하면 理裏象表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들어나는 象은 그 속에 人性 즉 喜怒哀樂의 性情이 있는 것이다.

東醫保鑑의 身形編에서 乾鑿度的 내용을 인용하여 우주생성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太易에서 太初, 太始, 太素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다. 太易에서는 氣가 나타나지 않고, 太初에 氣가 시작하고, 太始에 形이 시작하고, 太素에 質이 시작하여 形氣가 갖추어진다고 하였다.<sup>29)</sup> 따라서 形表裏氣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氣에서 눈에 보이는 形質로 만물이 생성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는 인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주 전체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러한 宇宙觀은 易을 象數의으로 해석하고, 天과 人이 感應한다고 보는 黃老學派의 대표적

인 사고 방식이다. 반면 李濟馬는 仁義禮智의 德性을 중시하는 義理易學의 추종자로서 인간이 天道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人性을 중시하는 인간을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東武遺藁의 八卦箴總論에 八卦를 仁義禮智로 나누고 그 이치가 미래, 과거와 知行, 財祿에 있는데 이것을 象으로 취할 수 있다 하였다<sup>30)</sup>. 이것은 이제마의 주역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許浚의 形表裏氣에 준하여 이름을 붙인다면 象表理裏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李濟馬의 周易觀을 살펴보면 기존의 易理에서는 太極生 兩儀하고 兩儀生 四象하고 四象生 八卦하여 吉凶과 모든 物象이 八卦에서 정해진다고 하여 四象은 단지 八卦로 분화하는 중간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지만 李濟馬는 心을 太極, 心身を 兩儀, 事心身物을 四象이라 하여 四象의 의미를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實體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sup>31)</sup>. 즉 物象의 본질은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物象으로서 構成的 요소의 기본단위로 삼았다.

宇宙生成의 原理를 파악함에 있어서 太極에서 분화되는 과정을 四象에까지 적용 宇宙의 構造도 四元的으로 관찰한 것이다. 결국 모든 현상과 사물은 四象 즉 事心身物로 歸納되어 설명되어 있고 이러한 설명관계는 宇宙現象, 社會現象, 人體現象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複合의인 四象構造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事心身物의 物象이 單獨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고 太極의 心과 兩儀인 心身の 내면적 발전과정을 거쳐 四象인 事心身物로 나타나게 된다<sup>32)</sup>.

29)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P.72

30) 東武遺藁 P.21

31) 宋一炳의 「四象醫學」, 集文堂 P.44

32) 上揭書 P.45

事心身物의 四象은 東武遺藁에 나와있는 것처럼 耳目을 事에, 胸膈을 心에, 腰臍를 身에, 膀胱을 物에 배속하여 上下概念으로 나눌 수 있고, 事를 天에, 物을 人에, 身을 命에, 心을 性에 배속하여 宇宙構成的 要素로서의 天人과 宇宙現象의 要素로서의 性命의 哲學概念과 肺脾肝腎, 頭肩腰腎과 額臍臍腹의 人체구조를 배속하여 天人性命을 설정하였고, 天人을 上下에, 心身を 左右에 배속하여 構造와 機能의 양면으로 나누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체계를 형성하였다.

易理에 대한 해석은 義理易波의 易 해석을 이어받아 仁義禮智의 人間の 德을 중시하여 八卦를 儒敎의 人 側面에서 자기 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반면 黃老學派는 易을 數理的인 개념은 해석하여 陰陽五行說과 天道를 중시하여 人間을 天道에 응하여야 하는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李濟馬는 이러한 黃老學派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濟馬의 內景醫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論曰 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方術好事者之言 容或如是 不必深責也 然 此書 亦是古人之經驗 而五臟六腑 經絡針法 病證修養之辨 多有所啓發 卽實是醫家 格致之宗主 苗脈之所自出也 不可全數其虛誕之罪 而廢其啓發之功也 蓋 此書 亦古之聰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術也 其理有可考 而其說不可盡信<sup>33)</sup>” 이라하여 內經이 의학의 宗主와 苗脈 즉 기본적인 출발점이기는 하나 그 학설을 그대로 믿을 바는 못된다 하여 內經에 대한 李濟馬의 생각이 다분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醫源論의 書頭에서 李濟馬가 나름대로 의학사를 정리하면서 醫道始興 즉 출발점을 內經으로 보지 않고 張仲景으로 보고있는

것을 보아서도 內經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內經은 기본적으로 黃老學派의 自然觀과 人間觀, 陰陽五行의 思考方式을 근간으로 삼아 그 理論的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自然을 大宇宙, 人間을 小宇宙라는 天人 相應的 觀點에서 人間을 파악하고 主體로서의 人間보다는 自然現象과 環境에 順應하고 調和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自然 中心의 認識論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四象醫學은 儒學的 背景에서 나온 人間中心의 思考를 가지고 있으며 出發은 周易을 儒敎的으로 해석하여 事心身物의 四象의 개념을 설정하고, 中庸의 儒學的 要約精神을 계승하여 시작됐고 事心身物의 四象의 要約精神으로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지 既存의 陰陽五行의 思考方式을 따른 것은 아니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天下喜怒愛樂之暴動浪發者 都出於行身不誠 而知人不明也<sup>34)</sup>”라 하여 喜怒愛樂 暴動浪發이 行身不誠과 知人 不明으로 온다하여 人間の 社會生活 속에서 나오는 갈등과 個體의 內面의 不誠實에서 나오는 갈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四象哲學은 人間の 自由意志와 自律行爲를 中心으로 하여 宇宙를 파악하는 人間中心의 宇宙觀으로서 道敎나 內經醫學에서처럼 人間の 現象이 宇宙自然의 運行法則에 歸屬되는 天人相應的 關係의 宇宙觀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人間の 對外的 現象보다는 對內的 現象인 性命에 비중을 더 두는 哲學的 立場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李濟馬는 周易을 儒學的으로 해석한 孔子 이후의 義理學派의 개념과 道敎的인 陰陽五行사상을 儒學적으로 해석한 周敦頤, 中庸의 載

33) 上揭書 P.443

34) 上揭書 P.437

物, 覆物, 成物의 개념과 儒學的 要約精神을 계승하고, 黃老學派의 象數易學의 數理的인 陰陽五行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取象精神만 받아들여 事心身物의 四象만으로도 모든 사물과 의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四象醫學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形象醫學精神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 IV. 結 論

1. 周易의 해석 방법에 數理와 象을 수단으로 하는 象數易學과 仁과 義 德을 중시하는 義理易學으로 나눌 수 있는데, 象數易學은 黃老學派의 주된 思想을 형성하고, 義理易學은 儒學的의 주된 思想을 형성한다.
2. 李濟馬의 形象觀은 周易을 儒敎的으로 해석한 義理易學의 觀點을 수용하고 中庸에 나타난 요약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四象學의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3. 李濟馬의 形象觀은 周易을 天, 地, 人 三才에 陰陽을 배경으로 하여 象과 數로써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 象數易學의 觀點중에서 天, 地, 知, 行의 四才에 四象의 요약정신인 事心身物의 배경을 통하여 數理보다는 象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4. 四象醫學에서 四象辨證의 방법에는 陰陽論의 待對的인 설명보다는 四象의 요약정신의 形象觀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構造와 機能을 동시에 설명하는 방법이다.

#### 參 考 文 獻

1. 康學偉의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 周桂細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6
3.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울 서광사 1990
4. 金珍根 왕부지의 주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6
5. 朴奭彦譯 格致彙 서울 태양사 1985
6. 宋一炳 의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7.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 成立에 대한 고찰 四象醫學會誌 Vol 3. No.1 1991
8. 楊維傑 黃帝內經釋解 서울 성보사 1980
9. 沿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 朝醫學 1985
10.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1985 杏林出版社
1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85
12. 李濟馬 格致彙 서울 태양사 1985
13. 中庸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8
14. 陳鼓應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4
15. 한국주역학회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사 서울 1992
1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